



“윌리엄스 감독은 내 이상 우승의 꿈 함께 이루고파”

KIA 주장 안치홍

“감독님의 선수 시절 타순도 기억해요. 같이 야구 할 수 있으면 영광이죠.”
 매트 윌리엄스 감독과 KIA 타이거즈 선수단 상경례가 이뤄졌던 지난 18일 합평 헬린저스 필드. 이날 경기장에는 개인 훈련 중인 ‘최고참’ 김주찬, 최형우, 나지완 등 베테랑도 자리를 했다. FA 신분이 되는 김선빈과 안치홍도 곁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안치홍은 지난 9월 7일 손가락 부상으로 일찍 시즌을 마감했던 만큼 더욱 ‘반가운 손님’이 됐다.
 안치홍은 선수단 상경례가 끝난 뒤 따로 윌리엄스 감독과 자리를 갖고 인사를 나눴다.
 ‘주장’ 안치홍을 반갑게 맞아준 윌리엄스 감독. 안치홍에게도 윌리엄스 감독은 특별한 인물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안치홍의 야구 선수 꿈을 키운 스타 선수 중 한 명이다.
 안치홍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참 때

초등학교 때 메이저리그 팬 감독님의 타순도 기억해
 복싱하며 체중관리 중
 올해 FA 신분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다

이저리그를 많이 보는 분위기였다. 당시 한국인 메이저리거들이 활약하고 있었고, 김병현 선배님이 계신 애리조나 경기기도 많이 봤다”며 “지금도 타순 7번까지는 기억한다. 그때 감독님 플레이하는 것을 많이 봤다. 인사드리면서 팬이었다고 말씀드렸다”고 웃었다.
 어렸을 때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선수가 팀의 사령탑으로 온 만큼 안치홍도 윌리엄스 감독에게 야구를 배우고, 우승의 꿈을 함께 이루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안치홍은 “당연히 선수라면 같이 야구하고 싶다는 욕심이 날 것이다. 좋은 분위

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안치홍은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 올 시즌 아쉬움을 털어내는 게 먼저라고 이야기한다.
 아쉬움 가득한 2019시즌이었다. 연이은 부상으로 지난해에 한참 부족한 성적을 냈다. 시즌 중반 김주찬을 대신해 처음 주장 역할도 맡았지만 팀의 가을잔치 꿈도 이루지 못했다.
 안치홍은 “부상 없이 풀타임을 뛰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고 시즌을 돌아봤다.
 시즌 초반 빗맞은 타구에 손바닥 통증을 안고 있었던 안치홍은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던 여름에는 파울 타구에 왼쪽 발목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발목 부상은 또 다른 부상으로 이어졌다. 발목 통증으로 슬라이딩을 잘못하면서 오른손 중지, 약지를 다쳤다.
 이어진 부상으로 공수에서 고개를 숙인 안치홍은 개인 기록 대신 팀을 생각하면서 일찍 시즌을 마감하고, 재활에 집중

해 왔다.
 안치홍은 “부상도 실력이라고 그랬다. 올 시즌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해서 팀과 팬들에게 죄송하다”며 “손가락은 붓기도 많이 빠졌고, 상태도 좋아졌다”고 몸 상태를 설명했다.
 이어 “복싱도 하고 있다. 준비 운동으로 줄넘기도 많이 하는데 재미있고, 운동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체중 관리와 순발력을 키우는 데 좋아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치홍은 2009년 ‘무서운 신인’으로 그라운드 등장에 KBO리그 최연소 기록들을 갈아치웠다. 한국시리즈 7차전에서 기록한 최연소 홈런은 경기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한 방이기도 했다. 그리고 강산이 바뀐 2019년, 팀 주축 타자와 주장의 무게를 책임지던 안치홍에게는 자존심을 구긴 아쉬운 시즌이 됐다.
 잘치부심 2020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안치홍이 ‘이상’이었던 윌리엄스 감독과 또 다른 ‘우승’ 도전을 할 수 있기를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두산·키움 오늘 한국시리즈 1차전



두산 오재일



키움 이정후

두산 린드블럼·키움 요키시 선발 대결

한국시리즈 우승컵을 향한 ‘마지막 승부’가 시작된다.
 김태형 감독이 이끄는 두산 베어스와 장정석 감독을 앞세운 키움 히어로즈가 22일 잠실구장에서 2019 KBO 한국시리즈 1차전을 치른다.
 5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한 두산은 6번째 우승컵을 노린다. 키움은 2014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한국시리즈 정상에 도전한다.
 두 팀 모두 짜릿한 역전소로 얻은 극적인 한국시리즈 티켓이다.
 두산은 정규시즌에서 9경기 차의 열세를 뒤집고 최종전에서 짜릿한 우승을 이루며,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키움은 포스트 시즌의 주인공이다. 키움은 LG 트윈스와의 준플레이오프에서 두 경기 연속 끝내기 쇼를 펼치는 등 뒷심을 발휘하면서 플레이오프에 성공했다. 그리고 SK와이브스를 단 세 경기로 제압하면서 한국시리즈까지 올라섰다.
 두산의 ‘경험’과 키움의 ‘기세’가 맞붙는 흥미로운 싸움이다.
 두산은 기선 제압을 위해 20승 투수 조쉬 린드블럼을 1차전 선발로 내세웠다. 키

움은 에릭 요키시로 1차전 승리를 노린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한국시리즈의 문을 열게 된 린드블럼은 올 시즌 리그의 최고 투수다.
 올 시즌 30경기에 나온 린드블럼은 2.50의 평균자책점으로 20승 3패를 찍었다. 막판 싸움 끝에 KIA 양현종에게 평균자책점왕을 내줬지만 다승과 승률(0.870), 탈삼진(189개) 부문을 독식하면서 ‘3관왕’에 올랐다.
 요키시는 올 시즌 30경기에서 13승 9패, 3.1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했다. 앞선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준플레이오프에서는 3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등 포스트시즌 두 경기에서 7이닝 4실점, 평균자책점 5.14로 부진했다. 하지만 정규시즌에 두산 특히 잠실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
 두산전에 5번 출격한 요키시는 3.19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 2패를 기록했다. 잠실에서는 세 차례 등판해 모두 승리투수가 됐고, 세 경기 평균자책점을 0.86으로 묶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양현종 ‘최동원상’ 수상할까

두산 린드블럼·SK 김광현과 함께 최종후보 선정

수상자 11월 5일 발표

조쉬 린드블럼(두산)과 양현종(KIA), 김광현(SK)이 제6회 최동원상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최동원기념사업회는 21일 ‘최동원상 후보 선정 기준 7개 항목 중 하나라도 통과한 19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총괄한 세 명의 프로야구 투수를 제6회 최동원상 후보로 확정했다’며 “3명의 투수가 시즌 내내 출중한 성적을 냈고 ‘자신보다 팀과 팬을 우선하는’ 최동원 정신을 누구보다 잘 구현했다”고 밝혔다.
 린드블럼은 지난해 최동원상을 받았고, 양현종은 1회와 4회에 수상했다. 김광현은 아직 최동원상을 받지 못했다.
 최동원상 후보 선정기준은 총 7개다. 선발 등판 30경기, 180이닝 이상, 12승 이상, 150탈삼진 이상,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실점 이하) 15경기 이상, 평균자책 3.00 이하, 35세이브 이상 등이다.
 김광현과 린드블럼은 올 시즌 30경기

선발 등판했다. 양현종은 29경기를 소화했다.
 투구 이닝에서는 린드블럼이 194.2이닝으로 190.1이닝의 김광현과 184.2이닝의 양현종을 앞섰다. 다승에서도 이 부문 타이틀을 차지한 린드블럼(20승)이 김광현(17승), 양현종(16승)에 우위를 보였다. 탈삼진 역시 189개로 1위에 오른 린드블럼이 김광현(180개), 양현종(163개)을 제쳤다.
 그러나 퀄리티스타트에선 김광현(24번)이 22번의 양현종과 린드블럼에 앞섰다. 평균자책점에서는 2.29를 올린 양현종이 가장 돋보인다.
 앞서 심사위원의 심사료만 수상자를 결정했던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올해부터 팬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심사 70%와 팬 투표 30%를 합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수상자는 11월 5일 발표한다. 시상식은 11월 11일 오후 2시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더 CJ컵 우승 저스틴 토머스, 세계랭킹 4위로 상승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남자 골프 세계랭킹 4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20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끝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총상금 975만달러)에서 우승한 토머스는 지난주 5위보다 한 계단 오른 4위가 됐다.
 2017년 창설된 더 CJ컵 ‘초대 챔피언’이었던 토머스는 2년 만에 한국 대회에서 다시 정상에 오르며 패권을 탈환했다.
 더 CJ컵 2라운드를 마친 뒤 무릎 부상

으로 기권한 브룩스 켈카(미국)가 1위를 유지했고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와 더스틴 존슨(미국)이 2, 3위를 지켰다.
 타이거 우즈(미국)는 9위에서 10위로 한 계단 밀렸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임성재가 44위에서 43위로 한 계단 올라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더 CJ컵에서 공동 6위를 기록한 안병훈도 48위에서 47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연합뉴스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이 지난 20일(한국시간)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슈투트가르트와의 분데스리가 2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볼을 다루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성 결승골 ... 강등권서 팀을 구하다

홀슈타인 킬 1-0 승리

평왕원정에서 복귀한 이재성(홀슈타인 킬)이 독일로 돌아오자마자 헤더 결승골을 성공시켰다.
 이재성은 지난 20일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메르세데스-벤츠 아레나에서 열린 슈투트가르트와의 2019-2020 분데스리가 2(2부리그)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맞선 후반 10분 결승골을 터뜨렸다.
 지난달 20일 하노버와의 7라운드 이후 3경기 만에 골을 터트린 이재성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득점을 5골로 늘렸다.
 독일축구협회(DFB) 포괄 1라운드를 포함하면 이재성은 이번 시즌 11경기에 출전해 6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시즌 ‘공격수’로 깜짝 변신한 이재성은 137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쏟아내고 있다.
 32분당 공격포인트를 올리며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 황희찬(잘츠부르크)과 110분당 공격포인트를 올린 손흥민(토트넘)에는 뒤쳐져 있지만 프랑스 리그1 보르도에서 활약하고 있는 황의조(207분)보다 공격포인트 기록 페이스가 좋다.
 이재성은 이날 골로 리그 득점 순위 공동 5위로 올라섰다. 득점 1위는 마누엘 셰플러(SV 베렌 비스바덴)로 8골을 기록하

고 있다.
 지난 시즌 포괄컵 포함 31경기에 출전해 5골 1도움을 올린 이재성은 11경기만에 지난 시즌의 골 기록을 넘어섰다.
 이재성의 활약에 힘입어 리그 2위 팀 슈투트가르트를 잡고 귀중한 승점 3점을 획득한 킬은 강등권을 벗어나 14위(승점 11)로 올라섰다.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던 후반 8분 독일 국가대표 출신 슈투트가르트의 센터백 홀거 바트슈투버가 무리한 반칙으로 경고 누적 퇴장당했다.
 퇴장과 함께 경기 분위기는 킬쪽으로 기울어졌다.
 후반 10분 이재성은 왼쪽 측면에서 팀 동료 요하네스 판 덴 베르크의 크로스가 올라오자 골 지역 오른쪽에서 상대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고 헤더골을 성공시켰다.
 슈투트가르트는 분데스리가 득점왕 출신 마리오 고메스 등을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킬은 마지막까지 이재성의 한 골을 잘 지켜냈다.
 이날 이재성은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킬에 소속된 측면수비수 서영재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출전 기회를 얻지는 못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